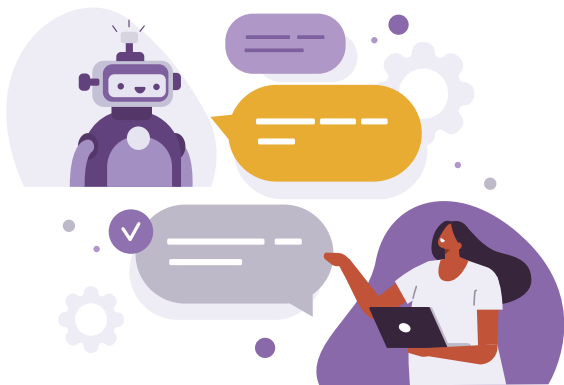


프롬프트, 질문하는 인간, 인간 고유성의 재구성

권오현 계간 스펙터 편집자



문장 생성형 AI ChatGPT, 그림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써본 사람은 알 것이다. 질문만 던지면 짜임새 있는 글과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 결과물의 질이 높지 않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보면 정말 그럴듯한데 왜 나만 그럴까? 이런 의문은 질문을 바꿔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을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

프롬프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력값

생성형 AI가 어떤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연어로 내리는 질문이나 명령, 즉 입력값을 프롬프트(Prompt)라 한다. 원래 영단어는 무엇을 하도록 '유도하다', '촉발하다'라는 뜻인데 19세기 연극에서 널리 쓰였다.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거나 무대에서 가야 할 특정 위치로 이동하지 않았을 때 배우를 안내하거나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프롬프트라 하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프롬프트러라고 불렀다. 프롬프트러는 연극의 모든 대사와 동선이 적힌 프롬프트 북을 들고 다니며 대사와 행동의 정확한 타이밍을 지시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니터가 달린 전자식 프롬프트러가 등장했고 인간 프롬프트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후 프롬프트는 의미가 확장되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전용됐다. 지금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알리는, 그러니 어서 입력값을 요청하라는 깜빡이는 메시지를 프롬프트라고 한다.

ChatGPT 같은 LLM(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은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단순히 결괏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말뭉치 데이터를 학습한 후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생성한다. 따라서 LLM의 가중치 로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ChatGPT가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이른바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우리가 주는 입력값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질문하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구성한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부상한 영역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 협업하며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학계와 산업계에선 공학과 통계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고용해 전문적으로 프롬프트 작성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흥미로운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ChatGPT에게 존댓말이나 공손한 말로 물었을 때 반말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들려준다거나, 제대로 답해주지 않으면 나의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면 더 수준 높은 답변을 내놓는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런 많은 연구를 종합해 보면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공통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프롬프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질문은 마찬가지로 모호한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철학의 정의는?”이라는 질문보다는 “소크라테스의 도덕 철학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알아차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

둘째, 질문에 대한 배경 정보와 문맥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질문을 할 때 정보와 문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놓거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답만 줄 가능성이 크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뭐야?”라는 프롬프트보다는 “한국에서 2024년 상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뭐야?”라는 질문이 더 낫다.

셋째, 질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프롬프트 작성이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이라거나, 리포트를 쓴다거나,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면 AI는 그에 맞춰 답변을 생성한다.

네 번째는 간결성이다. 불필요한 설명, 비문 등을 피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문체 선택이다. 학술적 어조인지, 친근

한 어조인지, 공식적인 회의 어조인지 분명히 하거나 그에 맞게 답변이 달라진다.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요즘, 정확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프롬프트 텍스트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글쓰기 기술, 타인과 원활하게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AI에게 풍부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어쩌면 이런 능력이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고유한 능력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능력을 갖춘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구글(Google) 자회사 앤트로픽(Anthropic)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최대 4억 4,000만 원의 연봉을 제시했고, 대체로 미국 AI 기업, 컨설팅 기업도 3억 원의 연봉을 부르고 있다. 국내 기업도 연봉 1억 원을 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낸 곳이 있다.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기업이 출시하는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현하는 기간을 단축해 주며, 운영 최적화가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좋은 질문은 다양한 배경지식에서 나오므로 반드시 공학에 지식을 갖춘 개발자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계에선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인간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고, ‘호모 프롬프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AI는 자율적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 그것도 인간의 질문에 의존하고 있다. 아이슈타인의 전기를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들도 찢찢매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이슈타인은 평생에 걸쳐 답보다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AI의 위협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고민할 때다. 